화 근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

2022년 8월 10일 우리 공화국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열고 돌발적인 악성전염병사태를 최단기간내에 평정하고 간고했던 비상방역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였다는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였다.

허나 공화국이 겪은 국난이 다름아닌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삐라살포놀음때문에 초래되였다는 명명백백한 객관적사실과 자료앞에서 누구나 다 적개심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런데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오늘도 계속 감행되고있다.

지난 시기 정세악화의 근원이였던 삐라살포행위가 점점 도수를 넘어 우리 공화국에 악성비루스전염병까지 퍼뜨려놓는 화근으로 된 오늘의 현실앞에서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에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 긴장격화의 불씨, 재난의 화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그 누구에게나 더없이 귀중한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들을 일체 중지하는것은 매우 관건적인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북남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불씨이다.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심리모략전의 한 형태로서 엄중한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라고 할수 있다.

삐라살포를 포함한 심리전책동은 전쟁

전야에 상대측의 심리를 흔들기 위하여 벌리는 호전광들의 상투적수법의 하나이다.

제국주의모략가들은 사람들의 사상심리분야를 두고 방어력이 가장 약한 《아킬레스의 발뒤꿈치》라고 하면서 《사람의 심리적종합체는 가장 약한 곳이며 바로 여기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도덕적침투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뇌까리고있다.

전쟁의 승패는 무장장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 도덕심리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력사에 기록되여있는 수많은 전쟁들가운데는 적들의 사상공세, 심리모략전에 녹아나 전쟁시작전에 벌써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전쟁들이 허다하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은 삐라는 《들리지 않는 총성》, 《종이폭탄》, 《심리

전의 보병》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삐라살포행위를 무차별적으로 감행하여왔다.

1990년대에 있은 페르샤만전쟁시기에도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기전에 이라크군대와 인민을 대상으로 집요한 심리모략전을 벌려놓았다. 미군부와 광고회사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삐라들은 이라크군대와 인민의 심리적약점을 틀어쥐고 그에 맞게 회유와 기만, 무저항, 무조건적인 투항을 설교하였다. 미국은 삐라심리전을 통해 이라크군인들이 총을 놓고 미군에 투항하며 미군을 반대하여 싸우지 말아야 이라크가 자유로운 나라로 될것이라고 선전하였다.

후에 미국의 심리모략가들은 이라크군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는데서 삐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떠들었다.

이처럼 삐라살포전이 전투형식의 하나

라는것을 놓고볼 때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사실상 북침전쟁도발행위이다.

지난 시기 괴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로 번져졌던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하기에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은 서로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전연지역에서 방송과 삐라살포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괴뢰보수패당은 그 합의이후에도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삐라들을 살포하는 비렬한짓을 감행하였다.

6.15이후 민간단체의 탈을 쓰고 진행되던 괴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은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해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심리전책동으로 강화되였다. 그

로 말미암아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발발의 위험성은 더욱 짙어지게 되였다.

리명박역적과 군부패당은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전소동을 벌릴 때마다 그 누구의 《도발》이 예견된다는 구실밑에 군사적대응태세를 강화하면서 군사분계선일대에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군 하였다. 이와 동시에 괴뢰군부것들은 최전방부대들을 싸돌아치며 《북이 도발하면 몇발이란 개념없이 충분히 대응사격하라.》,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과감하게 응징하라.》, 《북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해 최고수준의 태세를 유지하라.》는 폭언을 늘어놓으면서 북침전쟁광기를 부리였다.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에도 괴뢰군부는 삐라살포가 북남사이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경우 그것을 신속히 북침전면전쟁으

로 확대할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고있었다. 당시 괴뢰군부의 한 고위당국자놈은 《삐라살포가 시작되면 주변군부대는 모두 A급수준의 작전경계태세에 들어간다. A급이면 관하화력부대가 모두 동원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대응태세이다.》라고 실토하였다.

괴뢰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때마다 우리측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즉각사격태세를 유지하고있었다는 사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감행되는 삐라살포행위도 치밀하게 짜여진 대결각본에 따른 의도적인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도발은 응징을 부르기마련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괴뢰들의 광란적인 심리모략행위에 대처하여 반공화국심리전본거지들에 대한 상시적인 직접조준격파사격태세를 갖추고있다는것을 여러번에 걸

쳐 경고하였다.

2014년 10월 우리 인민군대는 삐라주머니를 매달고 날아들어오는 기구들을 소멸해버림으로써 괴뢰들의 삐라살포작전을 파탄시켜버리고 우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2020년 6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요란한 폭음과 함께 무너져내린것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괴뢰들의 도발적인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였다.

이처럼 상대방의 심리를 자극하며 벌어지는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은 북침전쟁을 노린 엄중한 도발행위, 긴장격화의 불씨이다.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또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공화국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침해하는 재난의 화근이기도 하다.

오늘 세계적으로 수지오물에 의한 환경

오염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수지오물들이 지구상 그 어디에나 널려져있어 그것을 회수처리하는것은 더 어려워지고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수지오물은 인류의 생존과 생태환경에 커다란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괴뢰패당이 지난 시기 뿌려댄 방대한 량의 삐라와 물건짝들은 대부분이 수지오물들이며 삼천리강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위험한 요소이다. 괴뢰들이 날린 풍선비닐쪼각과 헤아릴수 없는 삐라들, 잡다한 물건짝들은 사람들의 생명안전과 생활공간을 파괴하고 생태환경을 오염시키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시민단체인 환경운동련합이 《일부 탈북단체가 수십～수백만장의 삐라와 라지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투기행위를 단속

해달라.》고 괴뢰사법당국에 요구했겠는가.

더우기 우리가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오물로 취급되던 삐라쪼박들과 물건짝들이 우리 공화국에 《COVID－19》를 류포시키는 매개물로 되였다는데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COVID－19》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2019년 12월말 첫 《COVID－19》감염자가 발생하고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은 이 무서운 비루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악성비루스전파상황앞에서 전전긍긍하고있던 그때 벌써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 비루스의 위험성과 그것이 우리 나라에 류입될 경우에 초래될 심각한 후과를 꿰뚫어보고 국경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

를 취하였다. 하여 지구전체를 무서운 악몽속에 몰아넣은 세계적인 보건동란속에서도 우리 나라는 2년 3개월동안 단 한명의 감염자도 없는 최장의 신기록을 세계방역사에 새기여놓았다.

공화국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는 남조선괴뢰들과 더러운 인간쓰레기들은 우리 공화국이 방역봉쇄조치를 취한 첫해부터 우리 나라에 악성비루스를 류입시켜보려고 해상과 공중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각종 너절한 물건짝들을 계속 들여보내였다. 오염된 지페들을 수지병안에 쑤셔넣어 우리와 린접한 바다와 강하천으로 띄워보내는가 하면 각종 오물짝들을 기구와 풍선들을 통해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적망동을 저질러왔다.

지난 7월 조선중앙통신은 4월하순부터 우리 나라에서 급속히 전파된 악성비루스의 류입경로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

부의 조사결과를 보도하였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생물공학연구소, 비루스연구소, 의학연구원,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를 비롯한 해당 단위의 능력있는 일군, 전문가들이 망라된 조사위원회는 유열자들에게서 나타난 림상적특징과 역학고리, 항체검사결과에 따라 금강군 이포리지역에 처음으로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였다는것과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증하였다고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4월초 이포리에서 군인 한명과 유치원생 한명이 병영과 주민지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들에게서 악성비루스감염증의 초기증상으로 볼수 있는 림상적특징들이 나타나고 《COVID－19》 항체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되였다고 한다.

이는 우리 경내에 확산되였던 악성전염병이 광기를 띠고 감행되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삐라살포망동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너무나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면서 유지해오던 철통같은 방역장벽이 인간쓰레기들이 날려보낸 색다른 물건짝들에 의하여 파공이 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남조선괴뢰들과 인간쓰레기들이 날려보낸 삐라와 너절한 물건짝들에 의해 우리 인민들, 우리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고통에 몸부림쳤다고 생각하니 실로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이자들의 죄행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세균탄을 투하했던 미제의 반인륜적범죄와 전혀 다를바

없다.

이처럼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이야말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초래하는 불씨이며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악성비루스를 전파시키는 재난의 화근이다.

□ 추악한 대결정책의 산물

동족을 적대시하며 북남대결로 명줄을 부지해가는것은 남조선보수패당의 체질적 악습이다. 괴뢰패당의 뼈속까지 물젖어있는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의식,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이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로 발로되는것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삐라살포와 같은 비렬한 심리모략소동을 통해 체제

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은 괴뢰패당의 변함없는 《정책적목표》이다.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간판을 《대북정책》으로 내들었던 리명박패당은 그 실현조치의 일환으로 《대북전략비밀문건》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화의 문을 닫아매고 군사연습, 삐라살포 등으로 북을 압박》할것이라고 못박아놓았다.

하여 역도의 집권직후부터 군사분계선일대를 비롯한 우리측지역에 반공화국삐라들이 대량살포되기 시작하였으며 날이 감에 따라 살포범위가 우리의 종심지역으로 확대되고 삐라내용도 더욱 악랄하게 꾸며졌다. 역적패당은 반공화국모략선전을 더욱 확대할 흉계밑에 삐라살포책동에 수십만US$의 자금을 대줄데 대한 《법안》들까지 제출하였다.

지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 인민

의 피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던 때에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벌려놓아 우리 인민의 비통한 가슴을 더욱 아프게 란도질하였다.

박근혜패당 또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내들고 《북을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 《100번 찍어서 안되면 101번이라도 찍어 쓰러지게 해야 한다.》는 독살스러운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내뱉으면서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는 삐라살포행위를 끊임없이 벌려놓다 못해 구역질나는 이 추물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등을 두드려주고 숱한 돈을 대주면서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에로 내몰았다.

당시 남조선 각계는 삐라 한장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를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는 자기 졸개들을 내세워 이른바 《표현의 자유》니, 《민간단체의 자률적행동》이니 하며 삐라살포를 금지시키지 않는것이 당국의 립장이라고 고아댔다.

속통에 온통 동족에 대한 대결야망만 가득차있는 윤석열역도 또한 《북은 주적》이라고 줴치면서 그 누구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다 못해 삐라살포망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집권하기 며칠전인 지난 5월초 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도는 《대북방송 또는 북에 삐라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는데 잘못된 결정》이라고

줴치면서 《민간차원에서 벌리는 인권운동을 북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집권후 역도는 이전 《정권》시기에 회수하였던 삐라살포기재를 인간쓰레기들에게 되돌려주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고있는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을 페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묵인조장하에 역도의 집권이후부터 10월초까지 수많은 반공화국삐라와 너절한 물건짝들이 공화국지역에 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내외에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역적패당은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부추기는 저들의 본심을 감추어보려고 비렬한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2022년 10월초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

포현장에 괴뢰경찰이 나타나서 《통제》하는 흉내를 내고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자제》를 운운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것은 제놈들의 추악한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고 북남관계에 관심이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교활한 기만극이다.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화근이며 특대형반인륜적망동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합리화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에 걸어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것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역적패당은 지어 고등학교학생이 그린 저들을 풍자하고 조소하는 내용의 만화를 두고 《정치적주제를 로골적으로 다

룬 작품》이라느니, 《표절》이니, 《륜리범죄》니, 《엄중히 경고한다.》느니 하며 탄압해나섰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와 량심, 민심과 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 아닐수 없다.

모든 사실들은 반공화국삐라살포의 장본인이 인간쓰레기들과 함께 이 더럽고 혐오스러운것들을 비호두둔하고 조종할뿐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면사포를 씌워 반공화국삐라살포를 합리화하고있는 괴뢰역적패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괴뢰역적무리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의 배후에는 육실하고 비대한 변태동물과 같은 미국이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조국을 배반하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끼고돌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앞잡이, 충실한 도구로 리

용해왔다.

2008년 9월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는 반공화국삐라살포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자유북한운동련합》 대표놈을 백악관에 불러들여 《북의 자유를 위해 힘든 일을 하고있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미국무성도 2009년부터 해마다 남조선의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수백만US$를 집어주며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내몰고있는가하면 인간쓰레기들을 미국에 끌어들여 《전초병》이라고 추어주며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들과 모략기구들을 살포하는 기술을 배워주고있다.

미국회것들 역시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범죄로 규정하는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괴뢰당국을 압박하는 한편 매해 막대한 액수의 예산을 반공화국모략방송과 삐라살포, 《북인권》소동에

돌리고있다.

미국과 괴뢰보수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악마화》하고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집착하면서 사상최악의 제재봉쇄와 정치군사적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지만 반공화국압살야망은 하늘의 태양을 떨어뜨리겠다는것과 같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개꿈과 같은것이다.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 더욱 비렬하고 악랄해질수록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섬멸해치울 우리 인민의 절대적힘은 더욱더 증대될것이며 멸적의 기상은 적대세력들의 비참한 종말의 시간을 더더욱 당겨올것이다.

□ 내외의 규탄배격

《판도라의 함》에 대한 고대그리스신화가 있다.

판도라가 신들의 당부를 어기고 함을 연것으로 하여 온갖 불행의 씨가 튀여나와 인간세상에 퍼졌다는 신화와 함께 《판도라의 함》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불행과 고통의 화근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씌여져오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에 대해 《판도라의 함을 여는것과 같은 망동이다.》는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행위를 규탄배격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민심이다.

이미 여러해전부터 괴뢰당국의 비호밑에 인간쓰레기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에 나설 때마다 파주시, 련천군을 비롯한 군사분계선린접지역의 주민들은 삐라살포예견장소들을 먼저 차지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리였다. 또 삐라뭉치들을 빼앗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일부 주민들은 이자들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타고온 차의 유리를 부시는 등으로 반역자들을 혼쌀내였다.

이로 하여 인간쓰레기들은 여러번이나 도적고양이처럼 밤중에 삐라를 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 종교단체들도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단죄규탄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인 《전국민중행동》은 《<대북전단감시단>선포 기자

회견》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초래하는 삐라살포를 당국이 막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막겠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 단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정권>은 모든 권한을 리용하여 삐라살포를 막아야 하며 막지 않겠다는것은 전쟁을 하겠다는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쓰레기들이 삐라를 날리러 자주 오는 곳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법》과 원칙대로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대북전단감시단》을 임명하는 상징의식, 《삐라살포반대현수막》을 게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삐라살포단체들이 대북삐라살포를 예고하고 실제 실행에 옮길 때까지 당국은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불법대북삐라살포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한것은 방조나 다름없다.》고 괴뢰당국을 규탄하면서 《대북삐라살포가 남북충돌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므로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삐라살포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범죄자 박상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학의 대북삐라살포는 우발적인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로 자행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당국이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다.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인사들 역시 《감옥에 가있어야 할 범죄자 박상학이 미국의 돈을 받고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북삐라를 살포하는데 분노를 금치 못한다.》, 《윤석열<정권>이 박상학

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박상학과 함께 력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인간쓰레기 박상학놈이 극우보수단체집회에서 《연설》하려다가 쇠몽둥이에 얻어맞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놈을 징벌한 사람은 부산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가장이였다.

그는 기자의 물음에 《사법당국은 박상학이 언제 어디서 대북삐라를 살포하는지 다 알고있을것이다. 그런데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한번도 막지 않았고 처벌도 한적이 없다. … 만약 당국에서 범죄자를 처벌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서울까지 올라올 리유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괴뢰당국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이 일치하게 지적하고있는것처럼 반공화국삐라살포와 같은 대결

망동으로 가득찬 《판도라의 함》을 연 장본인은 다름아닌 윤석열역도이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반공화국대결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윤석열역도의 망동을 두고 《경색되여있는 현 남북관계를 더는 풀수 없는 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발상》, 《5년 내내 국민들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속에 몰아넣는 만회할수 없는 실수》, 《이전 보수<정권>때보다 정세를 더 엄혹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난하고있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저들의 특대형범죄인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에 대해 사죄는커녕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죄과를 감춰보려고 시도하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에 악성비루스를 류포시킨 범죄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있다.

하지만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각이한 물

체표면에서의 비루스생존기간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비루스로 오염된 식품이나 물품, 물체표면이나 포장지를 만진 후 눈과 코, 입을 만질 때 감염될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였다.

악성비루스가 물체를 통해서도 전파된다는것, 이것이 국제사회의 공인된 견해이다. 이러한 과학적해명은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로씨야대사는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COVID−19>가 남조선으로부터 류입됐다는게 의심할 여지없이 확증됐다.》고 하였으며 수리아정부도 《남조선당국이 최근 <COVID−19>에 오염된 물건짝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내에 들이미는 반인륜범죄를 감행한데 대해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세계여론들까지 인정하고있는 저들의

죄행을 한사코 부정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궤변은 결국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계속하겠다는것을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다.

악성전염병을 박멸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방역투쟁은 단순히 비루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적들과의 실제적인 전쟁,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의 연장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기 위해 칼을 벼리는 원쑤들이 매일 매 시각 눈앞에서 책동하고있으며 비렬하고 악랄한 수법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방역투쟁을 통해 명백히 체험하였으며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복수의 주먹을 억세게 틀어쥐고있다.

윤석열패당을 비롯한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철천지원쑤 미제와 함께 우리 인민의 불변의 주적이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것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행위가 없다.

민족분렬과 동족상쟁을 몰아온 범죄자,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장본인, 악성비루스전염병전파의 주범인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언제 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외세와 함께 우리 민족에게 온갖 재난과 고통, 불행을 몰아오는 화근이다.

죄에는 벌이 따르기마련이다.

천추에 용납 못할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날뛰는 윤석열역적패당이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다.

화 근

집 필 오보람

편성 송경희 장정 김영일

교 정 김철준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10월 24일

발 행 주체111(2022)년 10월 26일

ㄱ—1554ㄷ